

“한국, 마음 먹으면 5년내 핵폭탄 수십개 제조”

美과학자협회장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비공개 보고서 “월성 가압 중수로 핵탄두 年 416개 분량 플루토늄 생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일본이 핵무기 획득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전문가의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데다가, 핵탄두 설계 기술과 첨단 운반체계 능력까지 구축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레스토랑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 같은 ‘한국 핵무장론’은 워싱턴 주류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허황된 논리로 치부되고 있으나, 지난달 중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확산론자들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입수한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잠수

함 개발과 핵무기 운반체계인 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개발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우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확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를 활용해 핵물질 확보와 핵폭탄 제조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핵물질 확보는 우라늄 농축보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월성에 위치한 원전인 4개의 가압중수로(PHWR)에서 추출될 수 있는 준(準)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용해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핵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4개의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족한 연료공급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최저 150kg(핵폭탄 25~50개)에서 최고 500kg(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30메가와트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도 매년 11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처리) 기술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구시장·시의장 등 150명 5·18기념식 참석 광주 온다

광주시-대구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 출범

영호남 대표 도시인 광주·대구가 상생발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

4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날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150명이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 대구시장은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리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 상대 도시 민관협력위원 각 15명에게 위촉장을 줄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기존 달빛동맹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보고, 민간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북도청 이전 이후 활용계획 등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립대구과학관과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정부와의 국립과학관 운영비 부담 문제 등도 논의한다. 양 도시 간 달빛동맹 어젠다 사업의 첫 협력과제이기도 하다. 광주 방문단은 또한 광주 대상공원에 마련된 ‘대구시민의 숲’을 찾아 기념식수를 한다. 광주시민의 숲은 대구 두류공원에 마련돼 있다.

앞서 광주시와 대구시는 민관협력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추진 조례안’을 마련했다.

대구시가 민관협력위 출범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관련 조례는 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지난 달 20일부터 위촉직 위원모집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비슷한 절차를 통해 위촉위원 선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대구시의 광주 방문단은 5·18 기념식이 끝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씩으로 각각 구성하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제·문화·관광 등 분야서 활동할 계획이다. 해마다 2회씩 정기회의도 연다.

대구시의 광주 방문단은 5·18 기념식이 끝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씩으로 각각 구성하는 민관협력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제·문화·관광 등 분야서 활동할 계획이다. 해마다 2회씩 정기회의도 연다.

대구시가 민관협력위 출범의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관련 조례는 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지난 달 20일부터 위촉직 위원모집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비슷한 절차를 통해 위촉위원 선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광주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위원회 출범에 따라 영호남 교류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양 지역의 교류사업들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후 한때 극심한 슬럼화현상을 겪은 총장·금남로 인근 지역의 변화상도 살펴보기로 했다. 경

광주시, 내년 국비 2조1873억 지원 건의

신규사업 73건 2924억 포함

광주시는 4일 “신규사업 73건 2924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2조1873억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최종 점검을 위한 “2016년 국비지원사업 추진상황 종합 보고회”를 열고 국비 신청 규모를 224건, 2조1873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신규사업은 73건 2924억원, 계속사업은 151건 1조8949억원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2조304억원, 자동차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관련 사업 8347억원,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467억원 등이다.

또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321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문화관광환경 조성사업 552억원, 문화전당권역 내 글로벌 플라자 조성 500억원,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4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 중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추가했다.

윤 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의 첫 단추는 소관 중앙부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이 왜 필요한지 등 타당성 있는 논리로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잠정 확정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을 8일(월)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 평균연봉

5604만원

전년보다 4.5%↑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연봉은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470만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604만원 수준이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비과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 다만,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저위직부터 고위 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다. /연합뉴스



여성·가족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

4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지역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열렸다. 서포터즈단 신규 위촉자들이 이낙연 전남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산하기관 비리 방지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이낙연 지사 “25억 장비로 참기름 추출 어처구니 없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4일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 연루와 관련해 강도높은 재발 방지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도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이런 일(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기관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25억 장비로 참기름 추출 선물) 자체도 어처구니 없지만, 4년 동안 어저했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런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산하기관 비리 발생 요인을 임직원들의 공직 경험 부족, 신분 불안, 본청에서 떨어져 있어 남들이 모를 것이라는 심리적 의식 등 세 가지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어 “이런 일을 엄정하게 처리하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015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

빛 드는 창에 사랑을 그리다

지역민의 눈 건강을 지켜온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빛창 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인과 눈모양빌딩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시상내역
접수기간 : 2015. 4. 20 ~ 5. 13	대 상 (1명) 문화상품권 30만원
발 표 일 : 2015. 5. 15(금)	최우수상 (1명) 문화상품권 20만원
접수방법	우 수 상 (2명) 문화상품권 10만원
밝은광주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 작 (10명) 문화상품권 3만원
www.best-lasik.co.kr	

공모주제
사랑, 여름, 바다, 휴가 등
문의 (062)351-9938

밝은광주인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